



타종교 강세 속 다양한 전법활동 '관록'

전북 군산·익산·김제

교회 많기로 이름난곳의 '뚝심불심'

군산 호남은 기독교세가 강한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군산은 그 정도가 심해 인구밀도 당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불교계가 위축되거나 기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는 불교인들의 심성으로 조용한 듯 하지만 불자들의 신심과 정진은 결코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

백제불교를 처음 전한 마라나타가 창건한 불자사를 비롯해 은석사, 상주사 등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천년고찰이 지금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히 자리해 있다.

도시 확장으로 주택가 중심지가 된 설림산 은석사(주지 성우)는 금강불교대학, 진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설립한 진실어린이집은 100여 명의 원아가 생활하고 있으며, 금강불교대학은 내년 3월 개강에 앞서 6기 학인을 모집중이다. 또한 지장전에는 전북유일의 사찰납골시설인 영각당이 있으며, 사찰주위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해 지역주민들이 쉬어가도록 했다.

월명공원 내에 자리한 흥천사(주지 지환)는 수행과 포교에 있어 군산을 대표한다. 48년 전, 혈혈단신 군산에 첫발을 디딘 지환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수행하며 포교에 입했다. 1981년 반야선원을 개설해 안개 때는 재가불자가 함께 정진하곤 했다. 50대 이상 비구니 수좌 가운데 반야선원을 거쳐 가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이다.

급년으로 18년 된 반야유지원도 군산에서 꽤나 유명해 입학 때면 경쟁이 치열하다. 월명공원에서 노인들에게 펼쳐진 무료급식은 군산역 앞으로 옮겨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전 선운사 주지 재곤 스님은 시내에 도심포교당 관음사를 창건해 가족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곤 스님은 30여 년 전부터 군산에 주석하며 전북불교총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시내에 자리한 동국사(주지 종현)는 군산지역에서 신도회는 물론 고등부, 대학생 불자회, 교도소 법회, 군 법회가 처음 시작된 전형적인 도심포교당이다. 특히 법당은 1913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승려가 창건한 일본식 사찰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 한 채 남아 있는 적산사찰이다.

오성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의 포교반경은 지역



김제 금산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사진은 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모습.

군산 새싹포교·가족법회·문화활동 '인기'

익산 관음사·승림사 등 생활불교 이끌어

김제 금산사·불교회관 지역신행 구심점



올 4월 개원한 익산 호국충국사 육군부사관학교 법당에서 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을 초월한다. 문서포교 원력을 세운 송월 스님은 그동안 1만5000여권의 불서를 저비용 출판해 불자와 일반에 무료보급하고 있다. 현재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송월 스님은 군산불교회관, 지역 불교대학, 문화센터에서 선 체조, 불교기초교리를 강의하고 있으며, 군, 교도소 법회를 담당하고 있다.

연합활동으로 포교일선 꾸러

익산 익산은 근대들이 새롭게 조성된 종교도시이다. 기독교의 강세 속에 원불교 총본산과 원불교 종립 원광대학교가 사회, 문화,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 불교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 보인다.

지역적으로도 교구분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

어 불교 속의 오지를 연성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지역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는 눈물겨울 정도이다. 타종교의 공격적인 선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연한 종교편향으로 불교계는 몇 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보니 자연스럽게 개별 활동보다 연합 움직임이 강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익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광)의 활동이 눈에 띈다.

익산시가 합력무야 축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거액의 후원금을 책정하자 연합회가 나서 저지했다. 시립합창단이 찬송가 위주로 준비 중인 공연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암연합회는 대사회 활동으로 독거노인 돕기,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사암연합회를 이끄는 지광 스님(승림사 주지)은

1986년 해인사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불자여 눈을 떠라!'는 협서와 함께 '불교재산관리법 폐지'를 주장했다. 불교자주를 위해 애쓰는 지광 스님은 지역 불자들과 함께 불교수호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섬이 없다. 또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불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저비의 쌀 모으기 운동'을 펼쳐 소외이웃을 돕고 있다.

익산 도심 포교 중심지는 갈산동 관음사(주지 원성)다. 이리불교대학, 어린이법회, 학생회, 합창단 등 각종 신행단체가 관음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5년 전 법당 및 문화센터 불사가 회향되면서 신행단체 움직임이 더욱 활기차다. 일요법회, 시민선방이 운영중이며, 이리불교대학은 급년 14기 30여명의 학인이 재학 중이다.

불교학생회가 전국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대불련 익산지부(지부장 이응진·원광대)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학생회부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원광대는 동아리법당에서 매일 저녁예불을 봉행하고 있으며, 종교문화제, 100일 정진 등 각종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익산 호국 충국사(주지 정행)는 국내 최대 하사관 양성기관 육군 부사관학교 내에 자리한 군 법당으로 지난 4월 1200명의 군 불자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법당을 준공했다. 부사관학교는 연간 1만 여명의 사관후보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충국사에서 매년 4000여명의 군 불자가 수계를 받고 야전에 배치된다.

현재 충국사는 교육생의 40%가 법당에 나오고 있어 국내 군 법당 평균인 28%를 초과해 군 포교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뿌리깊은 신행단체 다시 뭉쳐...

김제 지리적으로 조계종 제17 교구본사 금산사의 영향이 큰 편이다.

지역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금산사가 시내에 불교회관을 개설했다. 불교회관에는 공무원봉사자모임인 연우회를 비롯해 합창단, 청년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새내기 사찰로 흥복사(주지 우진)가 손꼽힌다. 전강 선사가 주석하며 선종을 날렸던 흥복사는 학생회, 청년회 등 김제의 각종 신행단체 모태이기도 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신도조직이 힘을 잃었으나 새로 주지로 부임한 우진 스님이 도량정비를 마치고 신행단체 규합에 나섰다. 청년회를 복원하고 시민선방, 문화교실, 어린이법회를 개설해 대중포교 거점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해방사에 주석하고 있는 태고종 승정 남파 스님은 지역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는다. 남파 스님은 "지도자의 역량이 불교와 종단발전을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승려교육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최근 하소백련 축제로 전국적인 명소가 된 청운사(주지 도원)는 △음력법회 탈피 △의식중심에서 경전중심으로 대화·토론문화를 살리자는 기치아래 새로운 신행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사찰운영에 있어서도 '문화가 있는 사찰, 사찰자립경제'를 위해 백련축제를 운영하며 백련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해 일반에 보급하고 있다.

동국학원 금산 중·고교(교장 채규수)는 전북 유일의 중립학교로 1947년 금산사가 세웠다. 현재까지 중학교는 55회에 걸쳐 1만100여명, 고등학교는 46회 3400여명을 배출했다.

군산·익산·김제=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재곤 스님
군산 관음사 주지



남파 스님
태고종 승정



지광 스님
익산 승림사 주지



도원 스님
김제 청운사 주지



종현 스님
익산 동국사 주지



성우 스님
군산 은석사 주지



우진 스님
김제 흥복사 주지



원성 스님
익산 관음사 주지



송월 스님
군산 성흥사 주지



지환 스님
군산 흥천사 주지



정행 법사
익산 충국사 주지



채규수
금산 중·고교장

인터뷰 / 귀신사 회주 용타 스님 동사섭 법회 25년째 진행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더불어 존재'하며, 서로 잘 어울리면 편하지만 어울리지 못하면 불편하다. 불교의 사섭법(보시·애어·이행·동사)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으로, 사섭법을 바탕으로 개발된 '불교심성프로그램'이 동사섭 법회이다.



1980년부터 25년째 동사섭 법회를 이끌고 있는 용타 스님(김제 귀신사 회주·사진)은 "동사섭은 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을 삶의 5대 덕목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수련이다"고 소개한다.

동사섭은 무종교인은 물론 종교를 초월해 신부, 목사, 수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동참해 그동안 183회에 걸쳐 1만 여명이 거쳐 갔다. 특히 심리치료 전문가와 상담기관 종사자들 사이에 필수교육처럼 알려져 동사섭 수련에 참가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국내 정신화에서 독보적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마음 알기, 마음 다루기, 마음 나누기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동사섭 수련회는 방학을 이용해 5박6일 코스로 진행된다.(063-227-1000)

주목!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

2만평 백련지 연 30만명 '발길'

공연·전시·연차 시음 등 볼거리 풍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는 시골의 작은 사찰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2만 여 평의 백련지를 조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7~8월 여름 내내 피고 지는 백련을 좇아 사진작가가 몰려오더니, 소리 소문을 듣고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3년 전부터 아예 축제 마당을 펼쳤다. 백련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그대로서 야단법석인 자리를 마련했다.

급년연 축제기간에 물결 30만 명이 다녀갔다. 지난 3년 간 무대에 오른 예술인만 800여명. 청운사 백련을 주제로 한 시가 200여 편에 이른다.

주지 도원 스님은 "사람이 있어야 교육, 문화, 포교가 된다"고 판단하고 "백련을 방편삼아 사람들이 스스로 사찰을 찾도록 했다"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백련을 통해 사찰경제도 돌파하고자 했다. 원광대학교 장입보육센터와 2년간에 걸친 공동 연구 끝에 백련차를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청운사 백련차는 우전, 세차, 중차, 입차, 정차 등 총 7종으로 일반에 보급되고 있다. 급년연 제주시



김제 청운사에서 열리는 '하소백련축제'는 전국에서 연 3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있는 '야단법석'이다.

설을 기계화해 약 5톤의 백련과 관련된 상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27호 명화장기기도 한 도원 스님은 "주 5일제가 확산됨에 따라 사찰도 수행, 문화예술, 경제생산 등 3박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준엽 기자

인터뷰 /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 인재불사로 미래지향

미륵성지 김제 금산사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이자 명실공히 '전북불교의 얼굴'이다.



60여개의 발사를 중심으로 전북불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지 평상 스님(사진)은 "전북지역 포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토로한다.

수년째 교구본사 예산의 30%를 포교비로 쓰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교에 소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스님은 "단지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며 불교비람 일면 크게 일어날 곳이 이 지역이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조짐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금산사는 김제 불교활성화를 위해 시내에 불교회관을 개관했다. 비록 전세법당이지만 지역의 재가신행단체가 마음껏 정진하려다 운영도 재기에 맡겼다. 최근 들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재가신행단체가 서서히 움직이는 느낌을 감지한다. 3년 전 시작한 금산사 일요가족법회(매월 둘째 일요일)는 평상 스님이 직접 법문을 맡아 이제 자리가 잡혔다.

스님은 늘 강조한다. "김물불사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인재불사를 통해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것이 불교가 살 길입니다."